

3월의 사양관리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일반 사양관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꽃샘 추위와 황사로 인한 일기불순으로 호흡기 질병 및 사양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방풍막을 제거하고 우사 내·외부청소를 실시하며 축사주변과 내부를 소독하는 등의 관리를 한다. 따뜻한 날에는 운동장 사정을 고려하여 일광욕을 시키면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송아지는 내

부보다는 외부 사육시설로 옮기도록 하고 습하지 않도록 청소를 자주 해 주고 건조한 깔짚을 자주 교체해 주며 송아지 사육시설은 소독한 후 햇볕에 잘 말려 사용토록 한다. 사료의 허실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 유사비(유대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를 계산해 본다. 또한 조사료 재고량을 파악하여 호밀 등 청예가 생산되기 전까지는 조사료 부족이 없도록 한다.

사양관리

젖소의 도태는 유방염, 번식장애, 분만 전후 대사성 질병이 주 요인이다. 특히 번식이 되지 않는 소는 착유우로서 가치가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봄이 되면서 겨울동안 발정이 없었던 개체들이 정상적인 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 및 일광을 충분히 쬐어주고, 필요시 발정관찰보조제를 이용하여 발정발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후보축인 육성우는 당장 농가의 수입이 되지는 않지만 미래 튼튼한 착유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추위 등 소화기관과 골격을 충분히 발달시켜야 하는데, 배합사료는 제한급여하고 건초 등 양질의 조사료를 자유급여토록 한다. 특히 물은 젖소가 원할 때 항상 섭취

가 가능토록 해 주고, 사료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해 준다. 각 축군별로 충분한 사조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착유우의 경우 두당 최소한 60cm, 4~8개월령 육성우는 15cm, 17~21개월령 육성우 사조는 45cm 길이가 되도록 해 준다. 착유우의 경우 정기적인 MUN 분석치를 점검하여 정상수준인 12~19mg/dL가 되도록 관리한다. 자가 TMR을 하는 농가에서는 작성된 배합비에 정확한 양이 투입되도록 저울을 이용하고 배합순서와 배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 급여하는 TMR 사료의 입자도가 너무 곱게 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산유량이 높아진다고 해서 농후사료 급여량을 지나치게 높여주

면 조농비의 불균형에 의한 반추위 산도저하로 산독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바꿀 때에는 15일 이상에 걸쳐 서서히 바꾸어 주어 반추위내 미생물이 새로운 사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농분리급여 사양체계의 경우 정상적인 반추위내 미생물의 활동 및 산도 유지를 위해 조사료를 먼저 급여하고 배합사료는 나중에 급여하되 배합사료 1일 급여횟수

는 3회~5회 이상으로 나누어 급여한다.

젖소의 발굽은 몸을 지탱하고 발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산성과 사용년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타이스틀과 후리스틀 등과 같은 제한적인 축사체계에서는 적절한 예방적 발굽관리가 젖소의 발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연 2회 정도 정기적인 삭제 및 치료를 해준다.



방역 및 위생관리

구 제역 발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질병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자체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목장입구에 설치된 분사식 방역장비를 가동해 보고 노즐이 막히거나 균열로 새는 곳은 없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계절변화에 의한 송아지의 호흡기 증세와 설사 발생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어린 송아지의 경우 찬공기가 바로 송아지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고 낮에는 외부온도 상승에 의한 가스 발생이 높으므로 환기에 신경을 쓴다. 신생 송아지는 질

병 및 영양공급을 위해 분만 후 최대한 빨리 초유를 급여하고 분만우는 스트레스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및 사양관리에 주력한다. 분만우 관리에 있어 분만초기에는 대사성 질병인 4위 전위 및 식체, 유열 케토시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매일 산유량 및 사료섭취량, 몸의 상태 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질병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한다. 유방염 발생과 유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착유기계 및 파이프라인, 진공압, 라이너, 맥동기 등 착유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질저하 및 유방염 발생 위험이 있는 기계장치와 부품은 신속히 교체한다. 유방염우는 신속히 격리시켜 빠른 시일 내에 지속적인 치료를 해주어 착유시 다른 소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각종 장비와 조치 및 사료작물 관리

연 1회 정도 착유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착유기를 설치한 회사에 연락하여 진공압, 맥동기 상태, 라이너의 균열 여부 등 정기적인 점검사항들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목장에서 현재 착유시설에 유니트를 늘린다거나 자동탈락기 혹은 간이 유량계를 새로 추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진공펌프 용량도 다시 체크하여 진공 용량도 늘려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진공압 불균형 의한 유방염 발생의 원인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목장의 규모가 전업화·대형화 함에 따라 트랙터 및 TMR 배합기 등 대형장비를 이용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장비들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작업

효율을 높여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지만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대형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장비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각종 오일점검, 브레이크 및 각종 부착장비의 연결부분 등)을 실시하여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살펴야 한다. 조치관리는 해동 후 땅의 수분이 말라야 작업이 가능하므로 3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목초파종 및 손상된 초지에 보파하되 3월말을 넘지 않도록 한다. 3월 하순경에 연간 시비량의 1/3 정도를 시비한다. 또한 안정적인 낙농경영을 위해 최대한 자가 생산 조사료량을 늘려갈 계획을 세운다. ☺